

갑민가 | 작자 미상

또 금년니 도라오니 유리무녕(流離無定) 하노매라
나라님긔 알외자니 구등천문(九重天門) 머러잇고
노순堯舜)갓타 우리 성주(聖主) 일월日月)갓티 밧그신들
불(不) 점(沾) 성화(聖化)이 극변(極邊)의 복분하(覆盆下)라 빗칠소냐
그대 또한 내 말 듯소 타관소식(他官消息) 드리보게
북청부사(北靑府使) 뉘실런고 성명(姓名)은 잠간 이저있네
허다군녕(許多軍丁) 안보(安保)하고 백골도망(白骨逃亡) 해원(解冤)일래

각대초관(各隊哨官) 제신역(諸身役)을 대소민호(大小民戶) 분징(分徵)하니

또 금년이 돌아오니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노라
나라님께 아뢰자니 아홉 겹 대궐문은 멀기만 하고
요순같은 우리 임금 해와 달같이 밝으신들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이 극한 변방의 엮어진 항아리 아래에 비칠소냐.
그대 또 내 말 들어보소 다른 곳 소식 들어보게
북청부사 누구시던가 성함은 잠간 잊고 있네
북청부사가 군정을 제대로 실시하여 죽은 자까지 신역 징수대상에
넣어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이 물게 했던 것을 바로잡아주니,
이를 죽은 자의 원한이 풀렸으리

각부대 초관의 여러 신역을 크고 작은 민가에 나누어 징수하니